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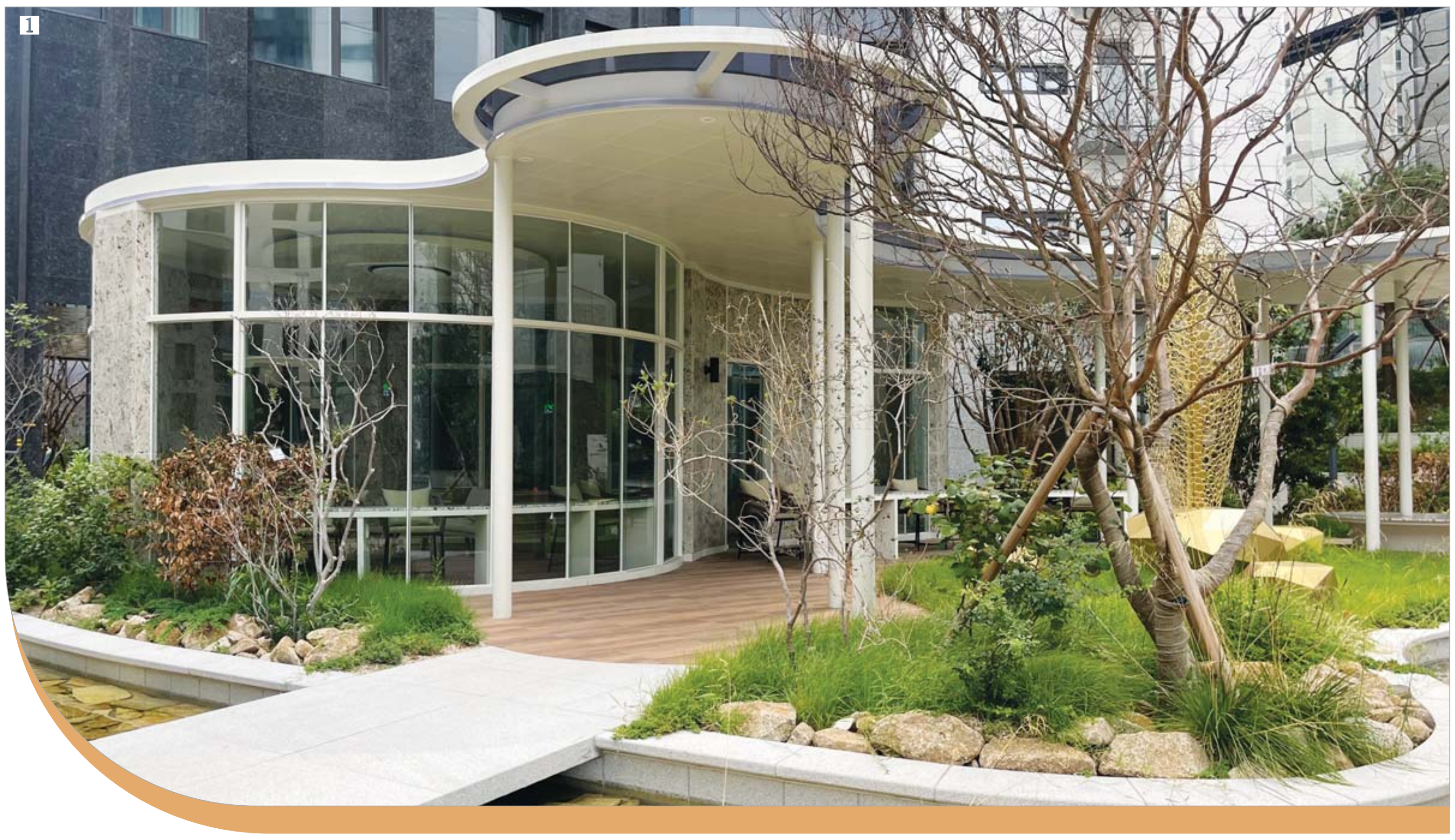
metro

Life

제5978호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한국필립모리스
비연소 제품 중심
체질전환
L1

유한양행
신약·CDMO
쌍끌이 성장
L2



아파트의 미학(美學)

오티에르 반포

포스코이앤씨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고급스러운 외관에 한강변 물결 표현
폭이 좁고 긴 특징 살린 정원형 조경

자연주의·한국식으로 꾸민 메인정원
수경시설, 금빛 조형물, 수목 한눈에
제주도 등 전국에서 공수한 나무 식재

보행동선 따라 정원, 휴게공간 이어져
자연석, 초화류 등 자연 둘러싸인 풍경

겹겹의 초록,골짜기 물소리 한국의 美 담은 '단아한 정원'

1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에서 공수한 나무가 식재된 단지 내 정원. 2다양한 수목이 식재된 단지 내 산책로. 3 단지 안쪽에 조성된 수경시설. 높낮이가 다른 석재 벽을 따라 흐르는 물과 다양한 수목이 배치됐다. 4수경시설 옆에 위치한 개방형 휴게공간. /성채리 수습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을 나와 걸으면 얼마 안 있어 '오티에르 반포'가 나타난다. 도로를 따라 길게 뻗은 대지 위에 두 개 동이 서 있고, 15층 높이의 스카이브리지가 건물 사이를 가로지른다. 스카이브리지까지 이어지는 동은 층수를 달리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층층이 물러나는 계단식 실루엣을 만든다.

단지는 긴 축을 따라 수목과 정원, 휴게공간 등 조경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구조다. 수목이 겹겹이 심어진 수풀이 주동 출입구까지 이어져 집을 나설 때는 자연이 배웅하고, 돌아올 때는 다시 마중 나오는 듯한 모습이다. 폭이 좁고 긴 단지 특징을 살려 하나의 기다란 정원으로 조경을 꾸몄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선 오티에르 반포는 신반포2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했다. 전용면적 44㎡부터 170㎡ 펜트하우스까지 여러 주택형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오티에르(HAUTERRE)는 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인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프랑스어로 '높은·귀한·고급'을 뜻하는 '오트(HAUTE)'와 '땅·영역·대지'를 의미하는 '테흐(TERRE)'를 합쳐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오티에르 반포는 브랜드가 실제 준공 단지에 적용된 첫 사례다. 신반포18차를 재건축한 '오티에르 신반포'도 지난 6월 준공을 마쳤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만큼 오티에르 반포는 외관에도 차별화를 줬다. 푸른 계열의 특화 색상에 한강변의 물결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문주 역시 일반적인 석재 마감보다 화려하다. 흰 바탕 위로 회색과 검은색 결이 소용돌이치듯 번지는 대리석 무늬가 돋보인다.

단지로 들어서면 커뮤니티시설 '클럽 오티에르'가 먼저 보인다. 낮고 완만하게 휘어진 건물 전면에 'HAUTERRE' 글자를 크게 새겼고, 기둥과 벽에는 문주와 같은 회색 계열의 석재를 사용해 디자인을 통일했다. 건물 옆 작은 중정에는 바위를 두른 원형 화단과 나무 한 그루가 자리한다.

주동 출입구가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경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정원이 펼쳐진다. 자연주의와 한국식 정원의 미감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가져온 나무도 옮겨 심었다.

지붕처럼 넓게 뻗은 차양은 정원을 따라 휘어진 모양이고, 그 아래로는 정원을 향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였다. 자리에 앉으면 수경시설과 금빛 조형물, 정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바닥도 나무 마룻바닥 처럼 마감해 석재와 유리로 구성된 건물에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티하우스 주변에는 얕은 물길을 둘렀다. 바닥에 돌을 깐 물 위로 작은 분수가 솟고, 물길 안쪽에는 풀과 나무, 자연석을 촘촘히 배치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금빛 조형물이 길게 솟아 있다. 작은 원형 고리를 엮어 만든 타원형 구조가 위로 뻗어 나무나 새순을 연상시킨다.

오티에르 반포의 조경은 보행 동선을 따라 정원과 수경시설, 휴게공간이 차례로 등장해, 마치 골짜기를 따라 걷다가 물과 숲을 만나는 듯하다.

메인 정원을 지나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수경시설이 모습을 드러낸다. 벽 사이로 흘러내린 물은 아래 연못으로 이어지고, 앞쪽에서는 작은 분수들이 솟아오른다. 물줄기가 가느다란 물방울로 떨어지며 반짝인다.

사방이 열린 휴게공간도 긴 테이블과 함께 마련됐다. 입주민들 여러 명이 머물 수 있도록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물이 잔잔하게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작은 정원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개방형 통로에도 작은 전망 자리가 나 있다. 벽 사이로 바 테이블과 의자 두 개를 놓고, 맞은편 정원을 향하도록 했다. 자투리 공간까지 조경을 감상하는 자리로 활용했다.

단지를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 양쪽에는 꽃을 피운 나무와 수형이 굽은 나무들이 시선을 붙잡는다. 중간중간 놓인 나무 벤치에서는 숲에 둘러싸인 듯한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반대편 보행 출입구에는 푸른색과 흰색의 입체 패널을 적용했다. 정문에서 사용한 특화 색상을 출입구와 놀이터 등 단지 곳곳에서 반복해 통일감을 높였다.

오티에르 반포의 조경은 작은 규모에 최적화된 밀도 있는 구성이 특징이다. 하나의 거대한 조경시설로 시선을 집중시키기보다 출입구부터 산책로, 숨겨진 조경까지 차례로 연결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 선수단, AG 금빛 다짐…"일본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 꽂겠다"
▲'데뷔전 데뷔골' 이강인, 단 13분 만에 '아틀레티코 7번' 자격 증명 /사진 뉴시스

▲'손흥민 27분→5경기 연속 침묵' LAFC, 콜로라도에 0-1 석패
▲K-콘텐츠 인기 뜨겁네…日 'K엔타메라보' 공개방송에 1200명 신청

▲'취사병' 이어 '신병4'까지…티빙, 군텐츠 장기흥행 노린다
▲하정우 '내부자들' 프리퀄 주연 …안보현·박해준·정성일 출연